



# 2015년 세계 보험산업 현황 및 2016-17년 전망<sup>1)</sup>

채원영 연구원

- 2015년 세계경제는 신흥국 경기 둔화로 2014년 대비 0.3%p 하락한 3.1% 성장할 전망이나 2016~17년에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 2015년 미국의 경우 2.5% 성장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영국, 일본, 유로존 등 나머지 선진국과 중국, 남미지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우 부진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 2016~17년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인도를 제외한 중국 등 신흥국은 경기 둔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 다만 러시아, 브라질 등 자원수출 신흥국의 경우 성장 둔화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5년 세계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2014년 4.7%보다 1.4%p 하락한 3.3% 성장할 전망이며 최근의 자산시장 회복세 및 대체투자 증가에 따른 투자수익 확대, 비용 절감 노력 등으로 수익성은 증가할 전망이다.
  - 2015년 선진시장<sup>2)</sup>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경우 2014년 대비 0.3%p 하락한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흥시장<sup>3)</sup>의 경우 남미지역 경제 성장 둔화로 2014년 대비 0.7%p 하락한 5.6% 증가할 전망이다.
  - 최근 들어 리스크관리 강화와 주식시장 호조, 수익성 개선 등으로 생명보험회사 자본은 증가하고 있음.
    - 세계 생명보험산업 ROE(세후)는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 호조로 2013년 12.0%, 2014년 13.0%를 나타냈으며,<sup>4)</sup> 2015년 상반기<sup>5)</sup> ROE(세후)는 13%를 기록함.
- 2016~17년 세계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로 2016년 4.0%, 2017년 4.2%

1) Swiss re(2015. 11), "Global Insurance Review 2015 and Outlook 2016/17"를 발췌, 요약함.

2) 북미, 서유럽(터키 제외), 이스라엘, 오세아니아,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3) 남미, 중앙유럽, 동유럽,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지역(이스라엘 제외), 터키, 아프리카.

4) Swiss re(2015. 6), "World Insurance in 2014: Back to life".

5) 글로벌 대형 생명보험회사 29개의 ROE.

성장할 전망이며 저금리 환경 지속과 규제환경 변화로 생명보험산업 M&A가 증가할 전망이다.

- 선진시장 수입보험료는 2016년 2.4%, 2017년 2.6% 증가할 전망이며 신흥시장의 경우 경제성장 둔화에도 인구증가, 도시화, 중산층 확산 등으로 2016년과 2017년 각각 10.7% 증가할 전망이다.
- 2015년 세계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2014년 대비 0.3%p 하락한 2.5%<sup>6)</sup> 성장하는데 그칠 전망이나 자연재해 손실이 줄어들고 2014년에 이어 비상위험준비금 환입(Reverse releases)이 지속되면서 보험영업이익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 선진시장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는 서유럽 수요 부진 등으로 2014년 2.0%보다 0.3%p 하락한 1.7% 성장할 전망이며 신흥시장의 경우 남미와 중앙·동유럽 경제 부진에 따라 5.6%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sup>7)</sup>
  - 2015년 주요 8개국<sup>8)</sup> 손해보험산업 ROE(세후)는 투자영업이익 악화 등으로 2014년 9.0%보다 2.0%p 하락한 7%를 나타낼 전망이다.
    - 손해보험산업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효율인상, 자연재해 손실 감소,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지속 등으로 미국과 일본 시장은 개선될 전망이며 유럽지역도 2015년 상반기 합산비율이 전년과 동일한 94%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그러나 경과보험료 대비 투자수익률<sup>9)</sup>의 경우 저금리 지속, 원수보험료 성장 둔화에 따른 영업 현금흐름 악화, 낮은 수준의 평균수익률 등으로 2014년 11.4%보다 0.5%p 하락한 10.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2016~17년 세계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각각 3.0%, 3.2% 성장할 전망이나 ROE(세후)의 경우 최근의 낮은 자연재해발생률이 유지되리란 보장이 없고,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투자수익에 반영되는 시차가 존재해 2016~2017년 6%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선진시장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최근의 낮은 손해율과 자본 유입 확대 등으로 큰 폭의 효율인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6년 1.8%, 2017년 1.7% 늘어난데 그칠 전망이다.
  - 신흥시장의 경우 2016년 7.9%, 2017년 8.7% 성장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보여 세계 손해보험산업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Swiss Re 등)

6) 2015년 성장률(실질)의 경우 유가 급락에 따른 CPI 하락 효과를 완화하여 시계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을 사용하였음.

7) 그러나 중국 등 신흥아시아 지역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12%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인데 이는 중국 자동차보험의 폭발적인 성장세 때문임.

8)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9) 평균 투자 수익(Average total investment income) ÷ 경과보험료(net premiums earned)